

에이즈바이러스는 얼마동안 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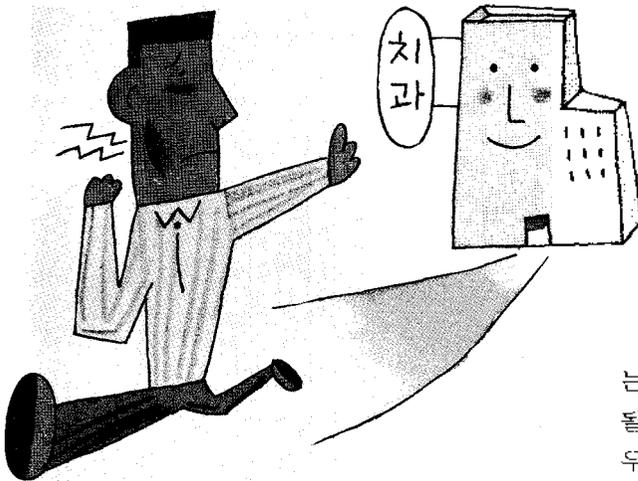
에이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며 자주 질문하는 몇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에이즈바이러스(HIV)는 뭍밖에 나온 후 얼마동안 생존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HIV는 침입한 입과구 속에서는 물론, 입과구 주위의 혈청이나 체액 속에서도 감염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공기가 건조하여 혈액이나 체액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활성이 급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공기 감염은 전혀 있을 수 없다. 보통의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한 염소가 용해되어 있으므로 차아염소산(0.5%)에 약한 HIV는 단시간(10분)에 활

한 감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30°C의 실온에서 혈청이나 체액이 건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 속에 있는 HIV가 수일간 생존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몸에 묻은 혈액이나 체액을 제거하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즉시 이를 대량의 흐르는 물로 강력하게 씻어내면 감염에 이르는 일은 없으며 비누나 소독액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

또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될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치과치료를 받을 때 출혈이 잘 일어난다. 이 때문에 앞서 치료받은 환자나 치과 의사로부터 에이즈바이러스를 옮길 염려는 없을까 하고 걱정이 될 수 있으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충분한 소독을 하고 있으므로 치과진료에서 감염될 염려는 거의 없다.

상처에 감염자의 체액(혈액·질분비액·정액 등)이 들어갔을 경우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상처의 크기나 정도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손톱을 물어뜯은 상처가 있는 곳에 HIV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피가 묻으면 HIV에 감염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 감염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감염되었다는 확실한 사례는 없다. **A**



성을 잃는다. 또 수영장이나 욕조에서는 대량의 물로 희석되기 때문에 B형 간염바이러스보다 약한 HIV는 감염력이 없다. 또 입을 통한 음식물에 의

우 준 희 / 서울중앙병원 감염내과 교수